

6월 선교소식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왕상18:39)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환호하는 기쁨 가득한 믿음의 소리입니다.

저 역시 지나온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들을 생각하며 "여호와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6월 소식을 나눕니다.

@ 탕가신학교 소식

● 학사일정.

이제 2번째 텀의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 남은 1개월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서로 위로와 격려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2번째 텀은 7월 27일에 종강을 합니다.

● 야외집회

매해 2번째 텀에 신학생 주최로 야외집회를 갖게되는데 올 해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신학교와 가까운 Pongwe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영적으로 큰 도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90%가 넘는 회교도가 분포해 있으며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슈가 많은 곳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할 곳 입니다. 이번 행사는 3학년들이 졸업하기 전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 준비, 진행해야하는 필수 과정이며 신학교의 중요한 영적 행사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집회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과 설교, 그룹 릴레이 기도예의 참여를 통해 영적 지도자로서의 발돋움을 용감히 해 나가게 됩니다. 올해도 많은 결신자들을 맺는 집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리빙스톤 중학교 소식

● 영적열매 소식.

리빙스톤 중학교는 기독교 학교로서 매주 2시간의 성경공부와(성경과목) 매일 아침 예배와 저녁 기도회를 갖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적당한 시기를 통하여 74명의 학생들이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리빙스톤 전교생 301명 중에서 74명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1명의 리빙스톤 학생들 중 약 20~25%의 학생들이 회교도이며 나머지 중에서도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입니다. 학원선교의 귀중함을 다 시금 실감 합니다.

- 리빙스톤 School picnic(야외소풍)

지난 6월 5일 개교이래 처음으로 야외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삶이 어려운이들에게 picnic 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였습니다. 그러니 마땅한 picnic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곳은 정말 적합하고 만족스러웠지만 왕복 거리가 약16km 가 되어 걱정이 앞섰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염려와 달리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리빙 스톤 학생들은 거의 모두 완주하였고 의미있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유롭게 외출하기 힘든 기숙학교 여건에서 학생들을 교문 밖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이유 외에, 굳이 16km의 강행군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마음의 여유를 배우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가 본 소풍을 통해 협력, 배품, 나눔, 공감, 공유, 배려 등의 경험은 미래에 한 공동체의 리더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시행해 볼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소풍간 지역 키체바(Kicheba) 마을에 그동안 학생들이 헌금한 약 백만 실링 탄자니아 돈을 마을 보건소에 기증하였고 약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한 후 그들과 함께 하는 그룹의 식구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갖게하는 리더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학부모의 날 (Parents' Day)

지난 6월 18일(토)은 학부모의 날 이었습니다. 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 각 종 보고와 회의가 병행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학교측으로부터 그동안의 학업에 관한 소식을 듣고 또한 학교측에 필요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금번 학부모의 날에는 2017년부터 시작하게 될 과학고등학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첫 시간 이었습니다. 공식 회의 후에는 태권도 시범이 있었으며, 각 가정에서 준비 해온 점심으로 자녀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 나눔과 배품

지난 6개월 동안 모아진 주일 헌금 5백만 탄자니아 실링을 므헤자 군에 소재한 28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뽑아서 도움을 주기라고 결정하고 므헤자 군수님을 모시고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나눔의 실천을 키워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는 탄자니아 한 일간지 지역 소식에 기사화되었습니다)

- 과학캠프

두 번째 학기 기말고사를 마치면 곧 이어 7월 28일 부터 8월 2일까지 일주일 간 과학캠프가 열립니다. 과학캠프로 섬겨주실 팀은 한국 유성에 있는 '탄자니아 고등어 선교회'입니다. 이 팀은 한국 유성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나 그 곳의 대학에서 일하시는 과학자, 연구원 그리고 교수 분들이 주축이 되어 이번 캠프를 위해 1년 전에 발족하였고 이제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9분이 참석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경주에서 오시는 발명가 가족과 미국에서 합류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선교회와의 교류가 이번 캠프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활발해 저서 더욱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어 가길 기도합니다. 이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는 우리의 사역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그분의 일을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그 분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시는지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단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리빙스톤 중학교가 과학을 중시하고 2017년 부터 과학 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런 캠프가 열린다는 것이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과학 캠프 준비 잘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리빙스톤 과학 고등학교 기숙사 건축 시작.

2017년 7월 부터 리빙스톤 과학 고등학교가 시작됩니다. 우선 고 1학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이 거주 할 기숙사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초 바닥공사가 끝나게 되고 곧이어 벽을 쌓는 일이 시작 됩니다. 기숙사는 총 3층으로 건축하게 되며 1동에 약 90-100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지난번 소식에 기도제목을 드린 것처럼 안전하면서도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함께 동역할 선교사 후보 소식.

리빙 스톤 학교가 성장하면서 요소요소에서 함께 사역 할 사역자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선교사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곳에 꼭 필요한 달란트를 가지신 고태일 집사님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고태일 집사님은 한국 수원에 거주하시며 과학 실험실 가구 설치 및 목공의 달란트를 가지신 분입니다. 탄자니아 법에 따라서 노동국으로부터 이미 work permit을 받았고 조만간 이민국에 선교사 비자를 신청하려합니다. 비자의 일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교회건축 및 헌당예배 소식

지난 6월 12일 주일에 '미소제 (Misozwe)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소제 교회는 리빙스톤 학교로부터 약 20km 거리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한국 서울 노량진에 있는 '신성장로교회'의 헌금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이번 헌당예배는 신성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 총 9 분이 방문하셨고 현지인은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준비해온 기념 수건 200장이 부족하였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주님께 헌당하며 기뻐하였던 그들의 기쁨의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어려움을 이기고 새롭게 부흥하는 미소제 교회가 되고, 또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교회들이 많이 건축 되도록 기도 많이 부탁 드립니다.

@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탕가신학교 야외집회를 위해서.

2. 고태일 집사님 선교사 비자를 위해서.
3. 7월 말에 갖게될 리빙스톤 과학캠프를 위해서.
4. 교사들과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하며 선교소식을 맺습니다.

2016년 6월 24일

박영훈, 김은래, 박윤석 선교사 드림.